

- 2017년도 거창군의회 -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기간: 2017. 3. 7. ~ 3. 15.(7박9일)
- 연수국가: 3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 연수인원: 15명(의원 11, 직원 4)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국가 현황	5
1. 영 국	
2. 프랑스	
3. 스위스	
III. 연수내용	25
< 영 국 >	
1. 주요 방문기관(시설)	
○ 애비 커뮤니티 센터	
2. 주요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 하이드 파크 · 켄싱턴 가든	
○ 대영박물관 · 영국 국회의사당	
○ 기타지역	
< 프랑스 >	
1. 주요 방문기관(시설)	
○ 랭스 상파뉴 와이너리	
2. 주요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 루브르 박물관 · 에펠탑 · 개선문 견학	
○ 베르사유 궁전 · 몽마르뜨 언덕	
< 스위스 >	
1. 주요 방문기관(시설)	
○ 취리히 주정부의회	
2. 주요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 알프스 융프라우	
○ 루체른 카펠교 · 빈사의 사자상	
IV. 연수를 마치며	53

I

연수개요

1. 연수개요

연수목적	유럽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문화와 도시기반시설 등의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연수동기 및 배경	글로벌 시대인 21세기에 걸맞은 수준 높은 의정활동 능력 배양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유럽 선진도시의 문화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수시책 및 시설을 비교 견학하여 향후 군정 정책입안에 참고 활용토록 방향 제시				
연수기간	2017. 3. 7. ~ 3. 15. (7박 9일)				
연 수 국	3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연 수 자 (직원제외)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계		11명		
	거창군의회	의 장	김종두	남	
	”	부의장	표주숙	여	
	”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	여	
	”	총무위원장	변상원	남	
	”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남	
	”	의 원	강철우	남	
	”	의 원	최광열	남	
	”	의 원	형남현	남	
	”	의 원	이성복	남	
	”	의 원	권재경	남	
	”	의 원	김향란	여	

2. 연수일정

일 자	장 소	방문지(기관)	비 고
3월7일 (화)	인 천 런 던	▶출발(인천국제공항)(소요시간:12시간 30분) ▶도착(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 13:00 출발 ○ 16:30 도착(런던)
3월8일 (수)	런 던	▶ <u>애비 커뮤니티 센터 방문</u> ○런던 남부 지역사회 복지시설 ○복지시설 시찰 및 자원봉사자 운영방안 ▶ <u>도시기반 및 관광산업 성공현장 시찰</u> ○도심속 공원인 하이드파크와 켄싱턴 가든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대영박물관” ○국왕의 대관식장 “웨스트민스터사원”견학	○ 복지시설 현황 파악 및 비교 ○ 도시기반시설 현황 비교·분석 ○ 문화 관광산업 현황 비교·분석
3월9일 (목)	런 던 파 리	▶ <u>근교지방 및 도시기반시설 현장 시찰</u> ○영국 왕실의 상징 “버킹엄 궁전” 견학 ○현대 의회정치역사 “국회의사당”, 시계탑 “빅벤” 견학 ○영국 왕실의 역사 “런던 타워” 견학 ○런던 최고의 개폐식 도개교 타워 브리지 ▶파리 도착(유로스타)	○ 도시기반시설 파악 ○ 문화관광 육성사례 비교·분석 ○ 의회정치 현황 및 실태 분석
3월10일 (금)	랭 스 파 리	▶ <u>랭스 상파뉴 와이너리 방문</u> ○프랑스 전통 샴페인 제조시설 견학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비교견학	○ 와인 제조 시설 파악 및 군정 비교견학
3월11일 (토)	파 리	▶ <u>문화 관광산업 성공현장 시찰</u> ○세계3대 박물관·인류 문화유산의 보고 “루브르 박물관” 견학 ○파리의 상징 “에펠탑” 견학 ○나폴레옹 승리 기념 “개선문” 견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절대왕정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 견학	○ 문화 관광산업 성공 현장 파악 ○ 도시기반시설 현황 파악

<p>3월12일 (일)</p>	<p>파리 로잔 인터라켄</p>	<p>▶문화 관광산업 성공현장 시찰 ○첨단 패션 거리 “상제리제 거리” 견학 ○ “콩코르드 광장”, “몽마르뜨 언덕” 견학 ▶스위스 로잔역 도착(고속열차 TGV편) ▶알프스 영봉의 도시 “인터라켄” 이동</p>	<p>○ 문화관광 자원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p>
<p>3월13일 (월)</p>	<p>융프라우 루체른 취리히</p>	<p>▶세계자연유산 자원 보전 및 관광자원 활용사례 시찰 ○알프스 영봉이자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요흐” 등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스위스 호반의 도시 “루체른” 탐방 (목조다리 카펠교, 빈사의 사자상) ▶스위스 허브도시 “취리히” 이동</p>	<p>○ 세계자연유산 보존 실태 및 활용 사례 파악 ○ 자연경관 활용 관광 자원화 사례 파악</p>
<p>3월14일 (화)</p>	<p>취리히</p>	<p>▶스위스 취리히 주정부의회 방문 ○의회시설 견학 및 상호 간담회 ▶스위스 상업·금융의 중심 취리히 문화 탐방 ○신학 아카데미 “취리히 대학” 견학 ○스위스 최고의 교회 “성 피터 교회” 견학 ○스위스 최대의 로마네스크 양식 서원 “그로스뮌스터” 견학 ▶출발(취리히 공항) (소요시간:10시간 45분)</p>	<p>○ 의회시설 및 현황 비교·파악 ○ 스위스 상업, 금융 중심지 비교·탐방 ○ 21:10 출발 (스위스)</p>
<p>3월15일 (수)</p>	<p>인천</p>	<p>▶도착(인천 국제공항)</p>	<p>○ 15:55 도착(인천)</p>

3. 연수방법

- 연수단원을 편성하여 선진외국의 행정조직, 지역자원, 도시개발, 교통,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자치도시의 성장배경과 운영방향 비교 시찰

- 세계 3대 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 방문을 통한 고대건축물의 복원 및 관리실태 파악 등 정보 수집
- 선진 문화도시의 역사·문화 시설들에 대한 보존환경과 도시의 역사적 배경 등을 고찰하여 거창군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내실화 도모

4. 연수효과

- 의정활동에 필요한 견문확대 및 우수 선진사례 수집을 통한 군정 발전방안 모색
- 국제화 능력배양과 전문지식 함양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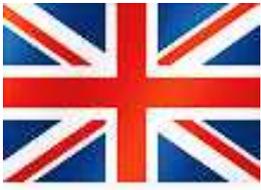
II

연수국가 현황

1

영국[United Kingdom]

■ 국가개요



- ◎ 위 치: 서유럽
- ◎ 수 도: 런던(London) (인구 약 853만 명)
- ◎ 언 어: 영어(English)
- ◎ 인 구: 64,430,428명(세계 22위) <2016년 말 기준>
- ◎ 면 적: 241,752km²(한반도의 약 1.1배)
- ◎ 종 교: 기독교(59.5%), 이슬람교(4.4%), 힌두교(1.3%)
- ◎ 기 후: 온대해양성 기후
- ◎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및 내각책임제
-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1) 영국 일반 현황

- 현황: 유럽 북서쪽에 놓인 섬나라로 가장 큰 섬은 그레이트브리튼이고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의 북부에 위치한다. 그 외 수많은 작은 섬들과 3,080km²에 달하는 내륙 수자원을 포함한다. 최대 인종 집단은 잉글랜드인이고 공용어는 영어이며 종교는 영국국교회와 그리스도교가 우세하다. 화폐단위는 파운드(pound/£)이다. 양원제를 채택한 입헌군주제이며 국가원수는 국왕이고 정부수반은 총리이다.
- 기후: 전반적인 대기순환 형태와 육지 및 바다의 상호관계에 의해 폭넓은 영향을 받아 온대성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기후 역시 다양성을 보이지만, 중요한 세계 기후대의 경계선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영국은 동쪽으로 유럽 대륙, 서쪽으로

비교적 늘 온난한 대서양을 끼고 있어 이 두 곳을 통해 영국 해안에 도달하는 대기의 온도와 습도는 완화된 상태이다. 영국 기후의 두드러진 특징은 변화가 많은 것이며, 드물게 나타나는 혹독한 기후 상태는 이 나라의 동식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평균강우량은 **1,000mm**가 넘는데, 남동부 해안지역은 **500mm**이며, 서부와 북부 산악지대는 **5,000mm**이다. 영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건조한 달은 대체로 **7월**이고, 가장 습한 달은 보통 **8, 10, 12월**이나 해마다 달라진다. 이처럼 연중 가장 습한 달이 **1~12월** 중 어느 달도 될 수가 있어, 외국인들은 영국 하면 으레 늘 비가 내리는 나라로 연상하게 된다.

- **경제:** **1975**년부터 원유를 생산해 온 북해유전이 영국의 국제수지 향상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제조업 국제무역·광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정체와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통화는 파운드(pound) 영국인의 경험주의적 현실주의의 국민성은 여러 분야에서 뚜렷하다. 벤담의 공리주의, 리카도의 자유주의적 고전경제학, 피그의 후생경제학, 케인즈의 고용이론 등 모두가 개인주의와 경험주의에 기초한다.

- **사회:** 영국은 전통적인 계급 또는 계층사회이다. 그러나 귀족평민·상노와 같은 신분적 계층사회는 아니고 출신·직업·교육 정도 등으로 가름하는 상중하의 계층이 있어서 그 각 계층은 다시 상중하로 **3분** 된다. 특히 의료혜택은 전국민이 무료이며 병원은 공영화되어 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춘 나라이며, 국제적 경제협력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973년 1월** 유럽공동체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탈퇴를 선언한 상태이다.

2) 견문을 통한 영국의 개괄적 이해

- 영국의 공식명칭은 대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나 보통 연합왕국(UK) 또는 대영국(GB)으로 불리며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네 지역과 9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섬나라로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대륙과 접하고 있음.
- 영국하면 떠오르는 말이 “신사의 나라”이다. 영국에서의 신사(gentle)의 원조는 19세기 중산계급이었다고 하며 영국 민족은 본래 포악한 성격을 지닌 민족으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오늘날 “신사의 나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함.
- 영국의 런던 하면 안개가 떠오른다. 그만큼 흐린 날이 많고 안개가 자주 끼는 날씨를 보여주고 있으며 “영국의 날씨는 하루 동안에 4계절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여름에도 해가 가리거나 비가 내리면 냉기가 들 정도로 변덕스런 날씨가 특징이다. 이렇듯 자주 끼는 안개로 인해 상가의 간판과 가로수 보호대 등은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 중세기 이래 세계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무역, 영토 등에서 세계에 군림하고 세계 1,2차 대전에서는 연합국의 주도국으로 전쟁을 이끌어 전승국이 되었지만 신민지의 독립으로 대영제국은 붕괴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예전 영광은 옛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의회정치가 일찍부터 발달 완성되어 오늘날 정당정치와 내각책임제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로 유명하다.
-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급락했던 영국 경제는 2009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유럽 경제를 견인해왔으나, 지난

2016년 8월 4일 발표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는 브렉시트 영향이 가시화 되면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함.

○ 영국의 도시는 많은 다른 인종들과 국적을 지닌 이들로 구성되어 용광로 같은 곳이다. 1950년대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연안 등의 옛 식민지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들어와 생활하여 그들의 문화나 전통을 유지하며 함께 모여사는 것을 볼 수 있다.

○ 영국인들은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 왕실에 대한 영국인들의 애정은 여전하고 아직도 귀족제도가 존속하는 나라로 판사는 지금도 가발을 쓰고 법정에서 서며 같은 술집이라도 중류계급과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다를 정도로 고전적인 계급의식이 있다고 한다. 또한 우측통행으로 바꾸는 나라가 많아도 여전히 좌측통행을 고집할 정도로 보수적인 나라다.

그러나 영국의 귀족은 전쟁 시에 가장 먼저 앞장서 출정한 계급으로 지금도 서민의 존경을 받으며 귀족제도를 없애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매우 특이한 민족이라 생각된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최고의 가문은 말보르 가문으로 처칠 수상이 이곳의 가문이라고 한다.

○ 영국에는 대국답게 최초로 실시되고 만든 것이 많은 나라다. 지하철(Underground, Tube)을 세계 최초로 운행했으며 석회질의 땅으로 풀이 잘자라 골프의 원산지가 되었고 또한 축구의 본고장이며 자연사박물관을 세계 최초로 세웠고 연금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나라이기도 하다.

○ 또한 영국 하면 1년 내내 꽃이 피는 나라 (5월의 장미꽃 축제), 1년 내내 잔디가 파란 나라, 지붕이 빨강, 녹색인 나라로 기억되며, 영국인은 자국의 전통과 문명에 자부심이 대단하다.

3) 영국의회의 의회제도

(1) 의원내각제: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엄격한 권력분립 대신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 권력의 융화가 강조됨. 하원 다수당의 당수는 총리(Prime Minister)가 되고, 내각의 각료는 대부분 하원의원들이 선임되므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한 것이 특징임. 즉, 하원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므로 다수당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정당을 통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짐.

따라서 하원 다수당은 집권기간 동안 정책의 수립·집행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고, 5년마다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됨. 제도적으로는 의회가 내각보다 우위인 듯 보이나, 하원 다수당의 당수 및 당 간부들로 내각이 조직되므로 실제로는 내각의 힘이 강함.

(2) 양원제

가. 하 원

하원은 선거에서 선출된 **65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각 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함. 현재 영국에는 **650개**의 지역구가 있음. 잉글랜드 **533개**, 스코틀랜드 **59개**, 웨일즈 **40개**, 북아일랜드 **18개**임. 정당별 구성을 보면 **2014. 9. 17.** 현재 보수당(Conservative) **304명**, 노동당(Labour) **256명**, 자민당(Liberal Democrat) **56석**임.

나. 상 원

상원의원은 대부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음. 상원의원 총 수의 상한은 없으며 **2014. 9. 17.** 현재 상원의원은 **779명**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종신직(Life peers)이 **666명**, 세습의원이 **87명**, 주교가 **26명**임.

종신직 상원의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여왕에 의해 임명되고, 그 직위가 세습되지는 아니함. 주교의 경우는 종신직이 아니고 주교를 그만두면 상원의원직도 상실하게 되며, 그 자리는 다른 주교에게로 넘어감.

(3) 위원회: 법률안별 심사위원회 구성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 위원회를 두고 있고, 예외적으로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함. 위원회는 보통 10명에서 50명 정도의 의원으로 구성됨.

우리 국회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법안심사를 위한 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s)와 소관 부처에 대한 견제기능(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 현안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Select Committees)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임.

(4) 회기(Session) : 1년 단위의 회기

영국의회는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구분이 없으며,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임. 2012년 이전까지는 회기가 주로 11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11월에 끝났으나, 2012년부터는 봄(5~6월경)에 회기를 시작하고 있음.

과거 유동적이던 총선 날짜가 2011년 법 개정으로 매 5년마다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고정됨에 따라 의회 회기도 이에 맞추어 총선 직후부터 12개월씩 다섯 번의 회기를 진행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4) 영국 지방의회 제도의 특징

- (1)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집행부와 입법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집행가능, 입법기능을 포함하여 수행하며 모든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임.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이 명확하므로 경비부담의 주체도

명확함(재정적 통제 외에 “자치단체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국회 입법”으로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3) 집행부의 사무조직은 책임자로서 수석행정관이 있고, 그 밑에 실 국장이 있으며 실·국장의 임명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함.
- (4)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피선거권자로서 공무원도 타 지역 의원에 출마가능

■ 국가개요

	◎ 위 치:	서부 유럽
	◎ 수 도:	파리(Paris)
	◎ 언 어:	프랑스어
	◎ 인 구:	66,836,154명(세계 21위)<2016년 말 기준>
	◎ 면 적:	543,965km ² , 남한의 5.5배
	◎ 종 교:	가톨릭(69%), 무슬림, 개신교, 유대교
	◎ 통 화:	유로화(EURO)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와 의회를 결합시킨 이원집정제

1) 프랑스 일반 현황

○ 위치: 북위46도 ~ 북위58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대각선이 1,000km인 6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동쪽은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북동쪽은 룩셈부르크, 벨기에, 남쪽은 스페인, 뛰어난 교통상 위치로 해서 유럽문명의 십자로라는 말을 들어 왔고 항상 중심이 되어 있다.

○ 기후: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알프스 지방은 겨울이 긴 대륙성, 마르세유 등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다. 우리나라의 4계절과 시기가 비슷하며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이다. 지역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크므로 행선지의 기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파리의 경우, 겨울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습기찬 날씨를 보인다. 반면에 여름에는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므로, 6월 이후 9월까지의 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외투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건조한 탓에 건물 내에서는 덥지 않다.

- 경제: 19세기 대영제국과 함께 서양 열강의 주축을 이루던 프랑스는 현재 EU 국가 중의 하나이며, 2016년을 기준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 중 중위권을 차지하지만 프랑스의 국민 총생산(GDP)은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다음으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다.

기간산업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대외수지는 현재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총 도로 807,601km, 철로 34,469km로 각각 유럽 최장 길이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제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기도 한 프랑스는 교통 분야에서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전철을 달리게 될 TGV가 바로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제작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최초 위성 '우리별 1호'는 프랑스의 아리안 로켓에 의해 쏘아 올려졌을 정도로 우주산업에 대한 노하우도 막강한 나라임.

- 문화: 프랑스의 음식문화는 영국 다음으로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서양 문화에서는 가장 엄격한 식사 예절이다. 이 나라에서는 식기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금물이며, 국민성은 현실적이고 검소하며 인생을 즐긴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착심이 남다르고, 자녀의 교육이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예의를 중시함.

2) 전문을 통한 프랑스의 개괄적 이해

- 프랑스는 독일, 이태리 등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영국과는 해협을 끼고 마주보는 유럽의 중심국가로서 프랑스인은 신으로부터 비옥하고 다양한 대지와 평온한 기후의 축복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프랑스의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기후며, 알프스 지방은 겨울이 긴 대륙성, 마르세유 등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서 지역에 따라 기온차가 매우 다른 기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중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폭우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우려됨.
-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인구 **224만 명**으로 **1860년**에 수도를 관할하는 오스만이 인접 지역을 병합하여 파리지역을 오늘날의 범위까지 확대시켰으며 당시 대규모의 수도 개선사업을 활발히 진행시켜 현재의 파리도시계획 근간을 이루었다고 하며 방사선 도로와 일방통행 도로로 계획되어져 있다.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역사적으로 항상 영국과 대치하여 온 나라이며 라틴계열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1600년** 전 몽고의 침입을 받은 적이 있어 지금도 아이들이 울 때 징기스칸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무서운 탄압을 받은 역사를 갖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식민지를 통치하는 나라임.
- 프랑스 연간 관광객 수는 전세계 **1위**이며, 관광 수입은 **3위**(**2013년** 기준 **1위**는 미국, **2위** 스페인)에 있는 관광대국으로 관광 **3대** 조건이라고 하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풍부한 나라임.

- “파리는 시 전체가 박물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체 건물이 유적 지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궁전, 성당, 광장, 공원, 기념물 등이 산재해 있다. 특히, 파리시내 귀족저택에서 개선문까지 귀족 산책길(1km)이었던 샹제리제거리, 나폴레옹시대 프랑스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축한 개선문,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 세계 만국 박람회 기념탑으로 세워 현재 파리의 상징물이 된 에펠탑, 센 강의 다리 중 가장 아름다운 다리이며 가스등이 켜지는 알렉산더 3세 다리, 옛 감옥소가 있던 바스티유 광장의 7월 혁명 기념탑과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이며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루브르 박물관, 세계 최고의 화려한 궁전으로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나폴레옹의 묘지가 있는 동성당, 8만m² 넓이의 팔각형 모양으로 혁명의 광장이라 불리는 콩코드 광장, 대통령궁으로 이용하는 엘리제궁,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1,200문의 포를 노획하여 녹여 만든 방동탑이 있는 일명 보석광장이라 불리기도 하는 방동광장, 고딕 건축의 대표적 양식으로 꼽히는 노트담 성당 등이 유명하다.
- 우리에게는 테제베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와 고속철도 건설계약을 체결한 프랑스의 유명한 고속철도 회사인 잭 알스톤 본사는 파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시발점으로 만주-시베리아-일본까지 테제베를 운영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테제베의 최고 시속 500km)
- 프랑스는 산이 별로 없고 비옥한 축복의 땅이라고는 하나 대신 석회성분이 많은 물로 수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먹는 물을 생산(제품명: 에비앙)하여 식수로 세계를 제패할 만큼 정수기술이 뛰어나다. 그러나 에비앙 제품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실패했다고 한다.

- 파리는 “빛의 도시”라고 할 만큼 야경이 아름다우며 “파리는 밤이 되면서 또 한번의 화장을 한다”는 말처럼 낮에 보는 파리와 밤에 보는 파리는 또다른 아름다운 면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안한 치안과 테러 위협으로 인하여 볼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임.
- 프랑스 파리는 서울 면적의 **1/4**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국제 관광도시이면서 세계 모든 여성이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멋과 낭만이 넘치는 도시로서 특히 파리를 “패션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할 만큼 패션과 향수, 예술 부분에서는 세계 최첨단을 걷고 있다고 함.
- **1866**년 병인양요 시 탈취해간 외규장각 도서는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환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처음 제기되어 **1991**년 우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면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은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이후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치다가 **2010**년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합의하면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뒤 정확히 **145**년 만의 일이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프랑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프랑스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으며 베르사유 궁전의 벽화도 전쟁에 관한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음. 이러한 중세의 전쟁을 종식시킨 프랑스인의 영웅은 잔다르크이며 현재 프랑스의 병역제도는 **11**개월 의무병역제도로써 주요부대는 외인부대로 알려짐.

3) 프랑스의 정치제도

- 알제리 문제 등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드골 장군은 **1958년 10월 8일**에, 준대통령제를 골자로 하여 대통령에게 강대한 권한을 주는 헌법을 공포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둔 **제5공화국**의 특색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에 있는데,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 초기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으나,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는 **2회** 투표, 소선거구의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는 **577명**의 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국민의회 및 지방의회 대표에 의한 간접선거로 구성된다.(정수 **346명**, 현재 임기 **6년**, **3년**마다 선거 실시)
- 정당은 중도파의 신공화국 연합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작은 당의 분립인데, 소선거제로 인해 정국은 일단 안정을 보이고 있다. 드골 대통령의 유럽공동체 결성(EC)를 기초로 하는 유럽의 단결을 꾀함과 동시에 타국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위대한 프랑스’의 실현을 지향했다.
- 드골의 퇴진 후 **1969년 9월** 조르주 폼피두 총리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74년** 급서했으며, **1974년**에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이 제**3대** 대통령에, **1981년 5월**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제**21대** 대통령에, **1995년**에는 신 드골주의자 자크 시라크가 제**22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2007년 5월**에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제**2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2012년 5월 6일** 재선에 패했고, 현재는 사회당 출신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대통령의 자리를 맡고 있다.

■ 국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유럽 중부 ◎ 수 도: 베른 ◎ 언 어: 독일어(65.6%), 불어(22.8%), 이탈리아어(8.4%), 로망슈어(0.6%) ◎ 인 구: 8,179,294명(세계 95위) <2016년 말 기준> ◎ 면 적: 41,285km²(남한의 0.4배) ◎ 종 교: 가톨릭(41.8%), 개신교(35.3%), 이슬람교(4.5%), 무교(20.1%) ◎ 정부형태: 연방과 민주주의 ◎ 통 화: 스위스 프랑(Swiss franc, CHF) ◎ 민 족: 독일계(65%), 프랑스계(18%), 이탈리아계(10%)
---	--

1) 스위스 일반 현황

- 지리: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서, 동서로 뻗은 알프스산맥, 그 북서부에서 북동으로부터 남서로 뻗은 쥐라산맥, 그리고 두산맥 사이에 중앙공원, 이렇게 세 지대로 대별된다. 알프스의 산릉에서 여러 깊은 계곡이 파여 심플론, 생고타르, 상베르나 등의 고개와 레만호, 뉘샤텔호, 보덴호 등의 호수가 있다.
- 기후: 사계절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온화한 기후이다. 여름에는 건조하여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도 견딜만한 날씨이지만, 최근에는 많이 더워지는 경향이 있다.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눈이 자주 오지만 심한 추위는 아니며 여행할 경우 알프스를 오르게 되므로 반드시 두터운 점퍼를 준비해야

한다. 겨울에는 대체로 실내난방이 약하므로 따뜻한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사회문화: 스위스 사람들은 대개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경향이 있고, 자신들이 세계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너를 중요시하고 양보하는 습관이 있어 이웃끼리도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독일, 프랑스, 이태리 문화가 혼합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이 4개 언어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알프스지역, 알프스 지류지역, 중부지역 및 Jura산맥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지방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
- 기타 현황: 스위스의 탄생은 **129**년 슈비츠, 우리 그리고 운터발덴 시 대표들이 만나 상호협력 및 지원 서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에는 **26**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스위스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동계 운동 특히 스키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며, 아울러 이들은 지난 **150**년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기에 국민성은 검소, 명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전체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하였다.

2) 견문을 통한 스위스의 개괄적 이해

- 스위스는 북쪽으로 독일, 서쪽은 프랑스, 남쪽은 이탈리아, 동쪽은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작은 나라이면서도 풍경이 다채로우나 국토의 **2/3**가 눈, 얼음, 바위와 산림으로 덮은 산악지대로 경작이 가능한 땅은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 척박한 땅을 지니고 있음.
- 스위스의 주요 산업은 정밀기계, 목축, 금융업, 관광업이 주이며 수

자원이 풍부하여 수력발전에 의한 전기를 생산, 인근 국가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영세중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음.

○ 스위스 전체 인구가 **818**만 명인데 비해 이 중 **4분의 1**은 외국인이며 이처럼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건국 당시 외국인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이주해왔기 때문이며 일부 유럽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인종차별이 전혀 없고 또한 국가의 공용어로 **4**개 국어를 사용하여도 학교에서 누구나 다른 지방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의회나 각종 회의석상에서 언어소통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함.

○ 스위스는 오랫동안 무질서와 폭력 정치시대를 거쳤으며 또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까닭에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아 왔음.

이후 **1648**년 유럽 **30**년 전쟁을 종결하면서 중립을 선언하고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났으며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스위스는 중립을 유지하여 국가를 지탱하여 왔고 이러한 전쟁의 역사 때문에 영세중립국이면서도 현재 국가예산의 **7.5%**를 국방예산에 사용함.

또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용병을 수출하여 힘든 시기를 견디어 냈다고 함.(당시 용병으로 나간 수는 **200**만 명임.)

○ 스위스의 금융업이 금융수지에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세계 최고로 발전하게 된 것은 스위스의 은행이 고객의 구좌에 대한 정보를 절대 비밀로 보장해 주며 스위스 “프랑”이 안전한 통화로써 외국자본의 피난처로 이용하기에 쉽기 때문임.

이러한 스위스 은행의 고객에 대한 비밀엄수는 국민성과도 연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독일 나치 초기에 인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스위스는 지하자원이 전무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알프스 산맥 중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몰려 있는 곳이 스위스에 있음.
스위스는 알프스의 자연경관과 수자원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로 산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관과 전국 곳곳에 설치된 **200**여 개의 사계절 스키장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뽑힐 만큼 전 세계인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스위스의 주요 관광지에는 “거리에서 먼지 하나 찾아 볼 수 없다”는 찬사를 받고 있고 많은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는 제네바와, 만년설로 알려진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 호수의 나라답게 최대길이 **72km**를 자랑하는 스위스 최대의 호수인 레만호 등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경관으로 해마다 관광객을 붐비고 있어 스위스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있다.
- 스위스의 주요 도시는 금융과 상업의 중심도시로서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취리히와 **200**여 개의 국제기구가 상주하고 몽블랑산으로 유명한 **2**번째 큰 도시인 제네바,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가 있고 보석 박람회와 열리는 인구 **17**만 명의 바젤, 각국 대사관이 주재해 있고 목가적인 풍경의 전원도시로 유네스코에서 전 도시를 문화재로 지정한 베른이 있다.
- 스위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4**개의 공용어를 위한 어학교육에 모든 주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초등학교부터 낙제제도 있음) 교육수준 또한 매우 높은 편으로, 의학, 화학, 물리분야에서 노벨 수상자 **26**명을 배출했을 정도로 교육은 오늘의 스위스를 있게 한 최대의 공헌분야이다.

- 또한 당대의 극작가 프리드리히 뉘렌마트와 막스 프리슈(저명한 소설가이기도 함)의 작품들은 국외에서도 널리 출판되었다. 20세기의 아르투르 호네거, 오토마어 쇠크, 프랑크 마르틴과 같은 작가들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스위스는 과학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취리히의 연방특수기술학교는 세계의 어떤 과학학교보다도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까지 학비일체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대학은 정부에서 일부부담하고 개인 학비 부담은 저렴한 편임. 또한 고등학교 졸업생 15% 정도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남은 학생 대부분은 직업학교에 진학하여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음.

3) 스위스 정치제도

- 스위스는 칸톤이라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음. 스위스는 연방국으로 연방, 칸톤, 게마 세 개의 행정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26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자적인 칸톤은 헌법에서 분권적 주권을 보장함.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여 주권을 가지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주민들도 실제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다. 스위스의 연방정부는 통신, 외교, 관세 같은 특정한 업무만 담당할 뿐 입법, 사법, 행정, 등은 칸톤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스위스는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총리와 같은 직책이 없음. 스위스의 내각은 서로 다른 주에서 선출된 일곱 명의 장관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매년 교대로 연방 대통령에 취임함. 대통령이라고 해도 외국 귀빈을 접대하는 등의 대외활동 만을 하며,

해마다 바뀌어 스위스 국민들은 대통령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함.

- 인구가 **700**만에 불과하고 국토면적이 우리의 **40%**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지만 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와 **8**만 불이 넘는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강소국임.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직접형 주민참여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대상도 제한적이라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 **3**월 현재까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 주민투표 (**2011**년) 등 모두 **8**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주민투표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스위스에서 매년 **10**건 이상의 주민투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수치이다.

- 성숙된 시민의식은 스위스처럼 참여의 기회와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의 직접 참여가 보다 원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스위스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1962**년 **12**월 **19**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63**년 **3**월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스위스는 **1965**년 겸임대사가 부임하였고 **1981**년 **9**월 주한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다.

-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관계는 중립국휴전감시위원회(NNSC)에 스위스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스위스는 이를 통하여 한반도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차관, 기술제공, 그리고 합작투자를 통한 제3국 공동 진출을 우리나라와 더불어 꾀하고 있다.

- 양국은 1971년 4월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75년 5월에 사증면제 협정, 1976년 11월 정기항공운수 협정, 1977년 12월 공업소유권 협정, 1980년 2월에 이중과세방지 협정, 1999년 6월에 무역경제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주요 방문기관(시설)

◆ 애비 커뮤니티 센터(The Abbey Community Centre & Association)

○ 일 시: 2017. 3. 8.(수) 10:00 ~

○ 장 소: 34 Great Smith Street, London

○ 참 석 자: Phayza fudlalla (Deputy CEO)

○ 시설소개

- 수도원 지역 사회 협회 (Astb Community Association)는 1948년에 설립된 자선 단체로 런던 남부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기관임. 영국 국회 의사당 지역의 부유한 지역에 인접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인식 제공과 적절한 식량, 서비스 및 주택에 대한 접근으로 표현되는 지역 사회에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는 기관이다.

애비 커뮤니티센터는 취약한 지역 주민과 가족의 건강증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한 윤리, 가치 및 열정을 공유하는 단체와 협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고용 시장 장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연한 유급 노동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였고, Victoria Bid, Job Center Plus 및 Asian Women's Network와 같은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현지인들이 지역 고용 기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하기도 함.

○ 주요 특징

- 커뮤니티센터 개념은 다목적센터(multiservice center), 근린센터(neighborhood center),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등으로 불리는 시설들이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들 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전 연령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교육·여가·문화·체육 그 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커뮤니티시설 설치기준의 자유: 설치는 법적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주체의 자율적인 계획 의지에 맡기고 있음
- 가변성 있는 집회공간의 설계: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공간은 명확한 용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소, 라운지, 취미실 등의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크기의 공간으로 구획함
- 주민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시스템 제공: 단지 내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설비시스템 제공. 기본적인 전기료, 운영비 등은 시설사용료를 받아 관리
- 커뮤니티시설과 광장의 인접배치: 단지 내 중심공간으로 계획함으로써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
- 기부방식을 통한 자원 조달: 많은 커뮤니티센터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용료가 무료, 다양한 기부채널을 통해 운영자금을 충당

○ 질의답변

Q1.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얼마정도 받고 있는지?

A1. 연간 운영비는 **13억 원** 가량 소요되며, 정부보조금으로 **50%**를 지원받으며 나머지는 금액은 수익사업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2. 커뮤니티센터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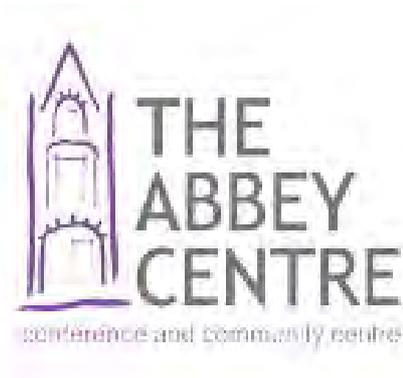
A2. 센터 내의 예식장, 이벤트홀 대관, 회의 장소 대관 등에서 수익의 **70%**, 나머지는 음료 등 판매에서 수익의 **30%**를 거두고 있으며,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있어서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음.

Q3. 커뮤니티센터에서 무료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A3. 무료 급식센터는 평균적으로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항상 방문하는 사람을 체크하여 꾸준히 방문하는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서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말벗 서비스 등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음.

Q4. 애비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A4. 영국 국적이지만 다문화화를 가지고 있는 **7명과 3,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와 지역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잘 운영되고 있음.



△ 애비 커뮤니티센터 외부 전경



△ 애비 커뮤니티센터 방문 기념

○ 시사점 및 거창군 적용 방안

- 영국의 애비 커뮤니티센터는 거창군의 거창군삶의쉼터와 대비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설립단계부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운영도 주민의 참여, 즉 자원 봉사자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거창군삶의쉼터는 운영비 **20억 원** 정도와 그 외 다양한 많은 사업비 그리고 관리 운영 인력 **30명**이 넘는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애비 커뮤니티센터는 **7명**의 관리인력과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사업비는 연간 운영비(**13억 원**)의 **50%**(**7억 정도**)의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을 볼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됨.

- 거창군삶의쉼터와 건립 추진 중인 장난감도서관 등은 운영인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문화가족의 소득 기여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군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 하이드 파크 및 켄싱턴 가든

○ 일 시: 2017. 3. 8.(수) 12:00 ~

○ 주요내용

- 켄싱턴 가든: 서펜타인 호수(Serpentine Lake)를 사이에 두고 하이드 파크와 켄싱턴 가든으로 나뉘지는 공원 중 하나이다.

110만m²의 넓이로 1728~1738년까지 10년 동안 켄싱턴 궁전의 정원 으로 이용되다가 약 100년 후 공원화시키면서 일반인에게 오픈되었다.

- 하이드 파크: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정원이었으나, 헨리 8세 때부터 왕실의 사냥터로 사용되다가 1637년에 일반에게 공개됐다. 런던 도심에 위치한 140만m²의 면적을 가진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공원 가운데에는 ‘서펜타인’이라는 인공호수가 있고, 근처에 피터팬 동상도 있다. 존 나시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모방하여 만든 ‘마블 아치’가 하이드 파크의 정문 격이다.

○ 시사점 및 거창군 적용 방안

- 런던의 중심가에 250만m²의 큰 공원이 있다는 것 자체로 놀라웠고 이처럼 런던의 경우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고 잘 가꾸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공장은 외국으로 이전하고 현재 영국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영국의 중심가인 런던에서 깨끗한 공기와 하늘을 볼 수 있었음.



공원 배치도



공원의 한가로운 백조

◆ 대영박물관

- 일 시: 2017. 3. 8.(수) 14:30 ~
- 주요내용

1753년, 왕립 학사원장을 지낸 의학자 한스 슬론 경(Sir Hans Sloane)이 남긴 수집품과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컬렉션이 더해져 영국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작품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몬태규 후작의 저택에 전시되었다가, 1824년 로버트 스머크 경(Sir Robert Smirke)이 설계한 신고전 양식인 현재의 건물로 옮겨지게 되었다.

지금의 영국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선사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나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고학 및 민속학 수집품들이 볼만하다. 대표적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로마 등에서 시작된 고대 문명에 대한 전시품들이 유명하며 그중에서도 미라와 로제타석은 언제나 관람객들로 붐비는 섹션이다. 또한 내부에는 한국관이 2000년 11월에 신설되었는데, 구석기 유물부터 조선 후기 미술품까지 두루 전시하고 있다.

영국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고학 및 민속학 수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로제타 스톤이나 람세스 2세 석상과 그리스 신전 부조물을 비롯해 이집트의 미라 등 그리스 양식의 건물 내에 전시된 엄청난 양의 수집품들을 관람하다 보면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과거 시대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대영박물관 작품 설명 청취

전시물품에 대한 예리한 관찰모습

○ 시사점 및 거창군 적용 방안

박물관은 사람과 자연이 무위적·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화의 결과를 담은 공간이다. 박물관은 과거에는 소장품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시하던 주최 측 입장의 전시 작품 감상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여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열린 학습의 장’ 평생 교육기관으로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박물관에서 현장학습으로 방문한 많은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함. 현장학습이 일상화되어 있고 어느 나라 역사를 공부하자면 대영박물관의 그 나라의 관을 방문해 자연스럽게 현장학습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규모나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보다 크고 자국의 유물은 물론이고 모든 문명과

외국 유물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운 점도 느끼며, 우리나라는 수천년 역사의 많은 유물을 약탈과 보관 부실로 인하여 잃은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음.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거창박물관은 유물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박물관도 변화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열린 학습의 장으로 체험의 기회를 부여 하기에 최상의 교육환경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영국 국회의사당(Palace of Westminster)

○ 일 시: 2017. 3. 9.(목) 10:50 ~

○ 주요내용

3만 3000m²에 이르는 넓은 부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건물인 영국 국회의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뾰족한 지붕이 인상적인 고딕 양식의 건물로, 지금은 세계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영국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웨스트민스터 대화재로 인해 벽돌로 지어졌던 웨스트민스터 홀만 남기고 모두 불에 탄 후 1852년 찰스 배리 경(Sir Charles Barry)의 설계로 재건된 것이 현재의 국회의사당이다. 헨리 8세(Henry VIII)가 화이트홀 궁전을 만들어 옮기기 전까지 이곳은 역대 왕들이 지내던 궁전이였다. 템스 강변에 고풍스럽게 자리잡고 있으며 총 1,000개가 넘는 방과 총 길이가 3.2km나 되는 신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이다.

건물 남쪽에는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높은 100m 높이의 빅토리아 타워가 세워져 있으며 의회가 개회 중일 때는 유니언 잭(영국 국기)이 게양된다. 북쪽에는 런던의 상징과도 같은 빅 벤이 자리잡고 있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으로 상원의사당, 북쪽으로는 하원의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영국 국회의사당과 시계탑 빅벤 외부 전경

○ 시사점 및 거창군 적용 방안

일정상 국회의사당은 직접 방문하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민주주의 발생지인 영국의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 및 지방자치제도가 개선되고 또한 일반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또한 빨리 성숙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빨리 제자리를 잡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지역

○ 세인트제임스파크 & 버킹엄궁전(Buckingham Palace)

버킹엄 궁전은 영국 왕실의 사무실이자 집이며, 국민을 맞이하는 공식적인 장소이다. 현재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도 평일에는 이곳에 머무른다. 여왕이 궁전에 있을 때는 궁전 중앙의 게양대에 로열 스탠더드(왕의 깃발, Royal Standard)가 내걸린다.

버킹엄 궁전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거행되는 근위병 교대식이 있다. 교대식이 벌어지는 동안 궁전 앞은 차량이 통제되고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 타워브리지

템스 강 상류에 세워진 타워 브리지는 국회의사당의 빅 벤과 함께 런던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건축물이다. 영국의 호황기였던 **1894**년에 총 길이 **260m**로 완성되었는데, 설계자는 호레이스 존스다. 양 옆으로 솟은 거대한 탑이 있는 우아한 도개교(跳開橋)이며, 도개교를 매단 두 개의 탑은 높이 **50m**의 철골 탑이다. 당시 런던탑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 탑에는 **1,000t**이나 되는 다리를 들어올리기 위한 동력 장치가 있다. 과거에는 **1**년에 **6,000**회 정도 다리가 개폐되었지만 대형 선박이 지나다니는 횟수가 줄면서 현재는 **200**회 정도로 줄어들었다.

1. 주요 방문기관(시설)

◆ 랭스 상파뉴 와이너리 방문

○ 일 시: 2017. 3. 10.(금) 14:00 ~

○ 장 소: 34 rue ru Champs de Mars - BP 2712 51053 Reims Cedex

○ 시설소개

-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샴페인 제조사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13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유명한 회사이다. 그랑 코드동(Grand Cordon)은 이 회사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54%의 피노 누아르, 46%의 샤르도네 포도 품종을 이용하여 생산한다.
- 상파뉴 와이너리는 1761년 피터 아놀드 마무(Peter Arnold Mumm)의 이름을 딴 "PAMumm"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의 쾰른에 기반을 둔 와인 생산자와 상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세기 초(1827년) 피터 아놀드 마무의 세 아들에 의해 프랑스 상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뛰어난 스파클링 와인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 설립되었음.
- 샴페인이란 명칭은 프랑스의 상파뉴(Champagne) 지방의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철자까지 똑같이 쓴다. 상파뉴 지방에서 나는 포도 주라는 뜻으로 이 지방 이름을 붙여서 쓰던 것이 그대로 술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17세기경부터 빚어진 샴페인은 적포도주와 백포도주로 나누어지며, 거품이 일어나는 발포성과 거품이 없는 비발포성이 있다.



기관 소개 영상물 시청



제품 제조 과정 설명 청취

○ 시사점 및 거창군 적용 방안

- 우리나라에 사과산지는 많지만, 달콤새콤한 맛과 향을 잘 살려 최상의 사과와인을 만들어 내는 곳은 전무하다.

얼마 전 사과주산지 중 한곳인 예산사과와인(주)가 ‘2017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한국와인부문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된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목격하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도 거창을 대표하는 농산물 사과를 이용한 사과원예농협조합에서 생산하는 산내울 사과애주가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판로 개척을 통해 사과 소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사과와인을 포함해 그동안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은 먹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맞추어 왔던 측면이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항상 먹고, 마셔서 소비되는 제품을 거창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가 농산물가공관련 지원사업의 중추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체험하는 6차 산업화하여 거창군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비하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사료됨.

2. 주요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 루브르 박물관

- 일 시: 2017. 3. 11.(토) 10:00 ~
- 주요내용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바티칸시티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을 꼽힌다.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을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후 5세기 동안 유럽 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은 오늘날 30만점 가량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 시설을 모두 돌아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동선을 파악하여 방문해야 한다.



루브르박물관 정문 유리 피라미드



루브르박물관 내부 전경

- 루브르 정문에는 유리 피라미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1989년 당초 유리 피라미드는 건축 당시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으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 그리스 작품으로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러의 비너스 등 수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각 나라별 시대별 작품이 전시되어 역사의 교육장이자 역사책을 보는 현장이라고 생각되어짐.

○ 시사점 및 거창군 적용 방안

- 프랑스는 4km마다 박물관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박물관이 있는 '박물관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박물관의 양적인 증대와 질적 다양성은 행정상의 어려움을 불러오기도 한다.
-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루브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리피라미드가 있다. 높이 21m, 총 603장의 유리로 만들어진 인상적인 건축물이다.
이것은 이집트의 기차피라미드를 모델로 한 것으로 건축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고전의 것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재창조해낸 미적 실험이라 평가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 이처럼 생각의 전환을 통해 최초에 계획하여 군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많은 시행착오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짐.
일부 반대가 있었다고 하여 결정을 번복하였다면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 된 유리피라미드를 볼 수 없었을 거라 생각됨.

◆ 에펠탑

○ 일 시: 2017. 3. 11.(토) 13:30 ~

○ 주요내용

에펠탑은 센 강 서쪽 강변에 드넓게 펼쳐진 샹 드 마르스 공원 꼬트머리에 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 대 구스타브 에펠의 설계로 세워진 탑이다. 높이

는 **301m**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였다. 총 무게는 **9700**톤으로, 철 기둥을 잇는 리벳을 약 **250**만 개나 사용했다고 한다.

- 에펠탑 건축 당시에는 우아한 파리의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철골 덩어리’라며 지식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소설가 모파상은 에펠탑의 모습을 보기 싫어 파리 시내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에펠탑 내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완공된 후에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고, 오늘날에는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에펠탑 외부 전경



에펠탑 외부 전경

◆ 개선문

- 일 시: **2017. 3. 11.(토) 14:00 ~**
- 주요내용

파리 시내 북서부, 샤를 드 골 광장 중앙에 서 있는 개선문은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다. 개선문이 있는 광장은 방사형으로 뻗은 **12**개의 도로가 마치 별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전에는 에투알(별) 광장이라고 불렸다. 프랑스를 구한 장군이자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1970**년에 샤를 드 골 광장으로 개칭되었는데, 지금도 에투알 광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높이 **50m**, 폭이 약 **45m**에 달하는 웅장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군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실각, 왕정 복고와 7월 혁명 등 격동의 시대를 거치느라 **1836년**이 되어서야 완성했다. 나폴레옹 1세는 **1821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숨을 거뒀다. 완성된 개선문을 보지 못했지만, 유해는 **1840년**에 개선문을 아래를 지나 파리로 귀환해 앵발리드에 매장되었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전사한 무명용사의 시신이 개선문 아래에 매장되기도 했다.



파리 개선문 정문



파리 개선문을 바라보며

◆ 베르사유 궁전

○ 일 시: **2017. 3. 11.(토) 15:00 ~**

○ 주요내용

원래 루이 **13세**가 지은 사냥용 별장이었으나, **1662년** 무렵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대정원을 착공하고 **1668년** 건물 전체를 증축하여 외관을 가로축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온 U자형 궁전으로 개축하였다. **1680년대** 다시 커다란 건물 **2동**을 증축하고 남쪽과 북쪽에 별관과

안뜰을 추가하여 전체길이가 **680m**에 이르는 대궁전을 이루었다. 이때 정원 쪽에 있던 주랑을 ‘거울의 방’이라는 호화로운 회랑으로 만들고, 궁전 중앙에 있던 방을 ‘루이 **14**세의 방’으로 꾸몄다.

- 거울의 방은 길이 **73m**, 너비 **10.5m**, 높이 **13m**인 회랑으로서 거울이 **17**개의 아케이드를 천장 부근까지 가득 메우고 있고 천장은 프레스코화로 뒤덮여 있다. 궁정의식을 치르거나 외국특사를 맞을 때 사용되었다고 하며, 화려한 내부장식을 한 ‘전쟁의 방’과 ‘평화의 방’으로 이어져 있다.

베르사유 궁전은 **1979**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베르사유 궁전 입구에서



베르사유 궁전 외부 정원

○ 시사점 및 거창군 적용 방안

- 어마어마한 베르사유 궁전의 내부에 놀라면서도 궁전 외부 정원이 한 눈에 들어왔다.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포원이 조성이 완료되었을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함.

너무나 멋진 베르사유 정원의 정형식 조경들 조경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또한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구입하면 평소에는 정원도 무료로 이

용할 수 있지만 분수쇼가 있는 날은 정원 이용권을 인당 9유로씩 지불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함. 이번 연수단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관광객들은 너무나 멋져서 분수쇼 관람 비용 9유로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들 한다.

군에서 추진 중인 창포원의 한가운데에 크고 멋진 분수를 설치하여 분수쇼가 창포원에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여 창포원이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의 관광 먹거리의 한 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 몽마르뜨 언덕

○ 일 시: 2017. 3. 12.(일) 10:00 ~

○ 주요내용

몽마르뜨르는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유명하다. 마르뜨르(martre)는 ‘순교자(martyrs)’에서 유래했으며 언덕을 뜻하는 ‘몽(Mont)’와 합쳐져 ‘순교자의 언덕’을 의미한다고 한다.

해발 130m의 야트막한 언덕이지만 평지가 주를 이루는 파리에서는 시가지를 내다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지대에 속한다.

몽마르뜨르 주변에는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사크레 쾨르 성당, 몽마르뜨르 묘지 등 관광명소가 있다. 사크레 쾨르 성당(Basilique du Sacré Cœur)은 1870년의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과 1871년의 파리 코뮌으로 프랑스가 혼란을 겪을 때 상처 입은 파리 시민들과 가톨릭 교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어진 곳이다.



몽마르뜨 언덕 앞에서



몽마르뜨 언덕 화가의 거리

○ 시사점 및 우리군 적용 방안

이 언덕은 야트막한 언덕이지만 평지인 파리 도시 위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를 한눈에 바라보며 산책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으로 우리군에서도 상림리 읍사무소에서 건계정으로 가는 현대아파트 뒤쪽 산을 자연 친화적 개발하여 공원화하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보도블럭 하나까지 신경쓰고 옛것을 지키면서 개발하는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됨.

화가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거창병원 앞 창조발전소 앞에 예술의 거리로서 주말 및 특정일을 상대로 한 예술인의 거리가 만들어져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 필요성 느낌.

1. 주요 방문기관(시설)

◆ 취리히 주정부의회 (Canton Zurich) 방문

- 일 시: 2017. 3. 14.(화) 10:00 ~
- 장 소: Stampfenbachstrasse 12 8090 Zürich
- 참 석 자: Wilhelm Natrup Amtschef / Kantonsplaner
(Chief of Spatial Development Department)

○ 기관소개

스위스는 20개 주(州)와 6개 반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며, 이 주와 반주들은 특별히 연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현행 헌법은 1848년에 채택되었으며, 1874년에 광범위하게 개정되었다.

입법권은 상·하 양원 연방의회에 부여되었다. 200명의 국민의원(하원)은 4년에 1번씩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46명의 전주의원은 2, 3년에 1번씩 각 주에서 2명, 반주에서 1명을 선출한다. 헌법개정과 같은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투표자와 주들의 과반수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임의적이다. 행정권은 4년마다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는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평의회에서 행사한다. 7명은 각각 연방정부의 부처를 관할하며, 7명 중 한 사람이 연방의회에 의해 1년간의 대통령직에 선임된다.

연방정부는 주로 국내, 국외 보안, 외교정책, 화폐제도 등과 같은 국가정책 문제를 책임진다. 주요정당으로는 급진민주당·기독교민주당·사회민주당 등이 있다.

1971년에 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법집행은 각 주의 관할이며

연방대법원이 최고사법기관이다. 중립정책에 따라 **1만 8,000명**의 병력만이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환자, 임산부, 일시적 지체장애자에게 무상치료 또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수당을 주며, 노인, 환자, 영구적 지체장애자, 유족 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실업보험 가입은 급여를 받는 모든 고용인들에게 의무적이다. 폭넓은 식이요법과 함께 우수한 의료진과 현대적 병원시설이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순환기 계통의 질병들이 주요 사망원인이다. 문맹률이 사실상 **0%**라는 점은 스위스의 광범위한 교육제도를 반영한다. 교육이 지자체나 주 수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26개**의 서로 다른 제도가 있다. 그러나 **7~14세**까지는 어디에서나 무상 의무교육이다. 중등교육은 장래의 직업연수나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단계로 나뉜다. 대학교에 등록된 **9만 5,000명** 이상의 학생들 중에 **20%**가 외국인이다.

신문들은 자주적이고 다양하며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그 내용이 지역적이지만 〈노이에 취르허 자이퉁 Neue Zürcher Zeitung〉을 포함해 몇몇 신문들은 국제적 경향을 띠며 세계의 주요신문에 속한다.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은 스위스민영 방송회사에 의해 관리되며 대부분 비영리적이다. **3개**의 분리된 방송 체계가 이 나라의 **3개** 주요 언어집단에 따라 조성되어 있다.

○ 취리히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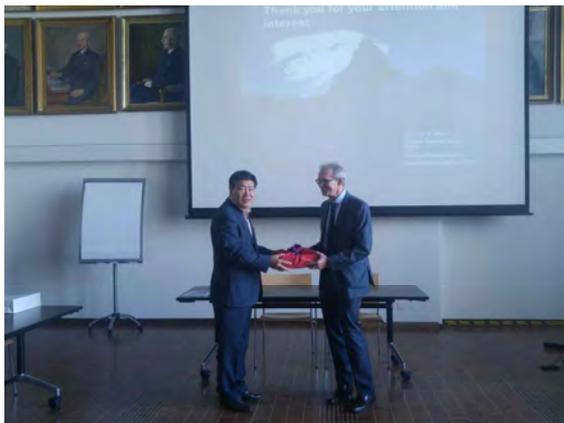
면적 **1,729km²**. 인구 **1,446,000(2016)**명으로 스위스의 칸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주도는 취리히의 주민구성은 **2000년** 기준으로 독일어 사용자가 **83.4%**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어 사용자 **4%**로 그 뒤를

있다. 종교로는 스위스 개혁신교회 39.9%, 가톨릭 30.5%의 분포를 보인다. 5.3%는 이슬람, 2.4%는 정교회 신자이다.

스위스의 상업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제네바와 함께 수도인 베른의 존재감을 공기로 만들어버리는 도시이기도 하다. FIFA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상견례 후 취리히 주의회 제도 청취



△ 기념품 전달 후 기념 촬영

○ 질의답변

Q1.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의 반대에 봉착했을때 주민동의 없이 수용 절차 등이 가능한지?

A1. 불가능함.

Q2. 도시계획과정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원사례는 있는지?

A2. 취리히 주에서 인구밀도에 낮은 지역에 이동식 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또한 취리히 아파트 렌탈비용을 낮게 책정하여 주택보급율이 높음. (취리히 아파트는 국가소유가 많으며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제도를 취함)

Q3. 취리히 주 정부에서는 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 하천의 탁도가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A3. 봄철 수초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취리히에는 공장이 없고 청정지역으로 실제로는 그냥 먹어도 될 만큼 수질은 깨끗함.

Q4. 주정부에서 소각장 등을 설치할 경우 반대는 없는지?

A4. 원전을 건설할 경우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인 소각장 설치의 경우는 반대가 있을 수 없음.

○ 시사점 및 거창군 적용 방안

-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연수 방문단이 취리히 주정부의회를 방문하였을 당시 취리히 주정부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이 당연히 안내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직원이 안내하고 접견을 하였다.

방문국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음.

(취리히 주정부의회 의원은 평소에는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 의회에 출근하여 의정업무를 본다고 함.)

- 책임자의 의회에 설명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정부에서 소각장 등 일종의 혐오시설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답변에 놀라웠다.

스위스의 주민의식이라면 우리군에서 현재 4년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타운 이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해결되었으리라 사료됨.

- 또한 기존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할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추진될 수 없다고 하며 강제 수용은 있을 수 없다고 함.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와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사료됨.

2. 주요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 알프스 융프라우

- 일 시: 2017. 3. 13.(월) 07:30 ~
- 주요내용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프라우는 인터라켄의 명물이자 인터라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높이가 **3,454m**에 달하는 융프라우는 눈 덮인 산봉우리와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융프라우는 ‘젊은 처녀의 어깨’라는 뜻으로 가장 높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융프라우에 오르는 교통수단인 톱니바퀴 기차도 명물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유럽 최정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반짝이는 눈 속의 얼음 궁전,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인 알레치 빙하가 있다. 여름이면 푸른 초원으로 변한다.

빠어난 알프스의 고봉들이 즐비한 가운데 융프라우는 알프스 최초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융프라우와 더불어 산줄기 사이로 뻗은 알레치 빙하도 유산에 속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변화무쌍한 날씨가 등재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인데, 유네스코 목록을 뒤져보면 빠어난 산세, 빙하와 함께 끊임없이 계속되는 날씨 변화를

등재 사유로 적고 있다. 유럽 사람들이 정상에 느긋하게 머물며 날
씨와 산세를 더불어 음미하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산 위의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융프라우의 매력이라는 것임.

3,000m가 넘는 고지에는 천문대와 연구소도 들어섰다. 물론 유네스
코는 융프라우가 유럽의 예술, 문학, 등반, 여행에 큰 몫을 하고 있
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높이 사고 있다. 융프라우가 친숙한 것은 역과
산악열차 때문이다. 암벽을 뚫고 1912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산악
열차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역(3,454m)인 융프라우까지 이어진다.



융프라우 정상



융프라우 스키장



산악열차



산악열차 내부

○ 시사점 및 거창군 적용 방안

- 스위스는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이자 알프스 산맥 중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자연경관과 수자원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로 산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관과 전국 곳곳에 설치된 **200**여 개의 사계절 스키장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뽑힐 만큼 전 세계인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음.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빼재산림레포츠파크 및 힐링랜드에 접목할 방안이 많아 보였다. 짚라인과 산악레일 바이크를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융프라우 정상 아래 마을에서 전원주택과 숙박장소 및 상점들이 즐비하여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창군도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아래 마을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숙박 등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사계절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료됨.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이용하여 미래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루체른 카펠교, 빈사의 사자상

○ 일 시: 2017. 3. 13.(월) 15:00 ~

○ 카펠교

1333년 로이스강에 놓인 다리이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나무다리로 길이가 **200m**에 이른다. 우아한 형태로 루체른의 상징이 되어 있다. 위를 덮고 있는 지붕의 들보에는 스위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를 표현한 **112**매의 삼각형 판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중에는 **17**세기 하인리히 베그만의 작품도 **10**여 점 있다.

다리 중간에 있는 팔각형 석조의 바서투름(물의 탑)은 등대를 겸한 루체른 방위 탑으로, 위급할 때에는 시민에게 경종을 울려 알리는 종각과 감옥소 또는 공문서의 보관소 등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기념품을 파는 상점이 있다. 밤이 되면 다리 주변에 조명이 들어와 경관이 아름답다.



카펠교 외관 모습



카펠교 내부 모습

○ 빈사의 사자상

빈사의 사자상은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조각상이다. 베르텔 토르발드센이 설계하고 루카스 아호른이 조각했다. 프랑스대혁명 당시 **1792**년 **8월 10**일 사건 때 툴르리 궁전을 사수하다 전멸한 라이슬로이퍼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조각상을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극찬하였다.



빈사의 사자상 전경



빈사의 사자상 근접 촬영 모습

- 영국, 프랑스, 스위스 3개 국가 연수를 통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먼저 선조들의 문화유산으로 도시 전체가 유적지 같은 관광자원이 즐비하여 수많은 국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놀라웠고, 또한 국민 생활 수준이 높은 부유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는 물을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고 물 값을 지불해야 하며, 주택과 호텔의 좁은 실내 공간과 겉은 화려한 듯 보이지만 찾아보면 환경을 중시하고 합리적이며 검소한 생활문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다.
- 영국은 시민의식이 철저한 나라로 런던 역시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복잡한 도시였지만 유럽도시 특유의 고요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영국하면 떠오르는 말이 “신사의 나라”이다. 영국 민족은 본래 포악한 성격을 지닌 민족으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오늘날 “신사의 나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런던 시내는 대부분 왕복 2차선 및 4차선의 좁고 복잡한 길로 교통이 혼잡할 때도 절대로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빨리 신속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낙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됨.
-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롭게 짓는 우리의 문화와 달리 영국은 100 ~ 200년이나 된 오래진 집을 좁지만 내부만 고쳐서 사용하는 영국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서 깨끗하고 세련된 것보다 낡고 오래 되어도 고전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국민임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영국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특히 애비 커뮤니티센터는 영국 국적이지만 다문화로 가지고 있는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 군에서 건립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프랑스는 연간 관광객 수는 세계 1위이며, 관광 수입은 3위에 있는 관광대국으로 관광 3대 조건이라고 하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풍부한 나라이며,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특히 “파리는 시 전체가 박물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내 전체가 유적이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궁전, 성당, 광장, 공원, 기념물 등이 산재해 있다.

○ 또한 프랑스는 산이 별로 없고 비옥한 축복의 땅을 가진 대국으로서 파리는 “빛의 도시”라고 할 만큼 야경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도시로서 군정의 많은 분야에서 배워야 할 국가이기도 하다.

○ 그러나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도시이자 시내가 다른 인근 유럽에 비해 쓰레기와 담배꽂초 등으로 인하여 지저분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이 우선인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선인 교통문화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주차장을 최대한 만들어서 생활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복잡한 출근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출근시간이 끝나면, 도로의 일부를 활용해 주차를 허용하는 행정의 유연성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느끼는 바가 크다.

○ 영국에서 프랑스, 프랑스에서 마지막 연수지역인 스위스까지 기차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삼면이 바다여서 외국으로 가는 수단이 주로 비행기인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기차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체험이다.

- 스위스는 국토의 대부분이 유럽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알프스 산맥의 능선에 걸쳐있는 산악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산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관과 전국 곳곳에 설치된 **200**여 개의 사계절 스키장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뽑힐 만큼 전 세계인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빼재산림레포츠파크 및 힐링랜드에 접목할 방안이 많아 보였다. 썰라인과 산악레일 바이크를 설치하여 산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알프스의 정상 융프라우 아래 마을에서 전원주택과 숙박 장소 및 상점들이 즐비하여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서유럽 선진국 **3**개국을 짧은 기간에 모두 살펴보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의식수준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7박 9일** 일정의 연수를 마쳤다.